

황룡강 물길 바꿔 확보한 ‘축구장 5개 면적’ 최초 기획은 누구?

지역 언론 “취암천 최초 아이디어는 김홍식 전 군수”

장성군 “유로 변경은 민선 4기 재임 당시 최초 구상”

장성군은 ‘유두석 장성군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형적으로 흐르던 황룡강 취암천의 물길을 바꾸고 기존 물길을 매워 34,818㎡(약 10,532평)의 부지를 확보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물길을 바꾼 최초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가’를 놓고 지역 언론과 장성군청 간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언론은 “최초 기획은 민선 1·2·3기 김홍식 군수가 지난 2003년에 구상해 한 건축사무소에 의뢰한 결과물이다”며 “건축사무소는 이 결과물을 김홍식 군수가 퇴임한 4개월 후인 2006년 11월 제출돼 결국 유두석 군수의 기획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반면 장성군은 반박자료를 통해 “취암천 직강화(유로 변경) 사업은 민선 4기 유두석 군수 재임 당시 최초로 구상된 사업이다”며 “본격적인 취암천 직강화 공사는 유두석 군수가 재임

한 민선 6기부터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1차 공방 시작

지역언론은 지난 1월 24일 “유두석 군수 ‘상습적 거짓말’ 또 드러나”란 기사를 보도했다. 내용에 의하면 “유 군수는 ‘황룡강 물길을 바꿨다... 습지가 명품 경기장으로 바뀌었다’. 취암천 매우기는 ‘발상의 전환’이라며 자신이 고심 끝에 얻은 사업 안이라고 주장했고, 전남, 장성은 물론 전국으로 기사화됐다”며 “그러나 이는 유 군수의 명백한 거짓말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현 공설운동장 부지는 2014년 김양수 군수가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낸 사업안으로 밝혀졌고 그해 3월 전남도청에 ‘시행 허가 신청’을 했다”며 김양수 전 군수가 2012년부터 준비해 2014년 3월 시행 허가를 신청한 공문과 전남도청의 허가 공문을 게재했다.

이에 장성군은 1월 24일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반박자료를 통해 ▲2006년 9월 11일, 장성군 담당 공무원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을 찾아 취암천 하류부 유로 변경 및 정비(400m, 사업비 30억 원 규모)를 건의한 바 있음 ▲전라남도 건의 등 취암천 유로 변경 절차를 즉각 추진하려 했으나 하천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하천법 제25조), 취암천 유로 변경 반영이 2012년에야 가능했음 ▲이에, 민선5기(김양수 군수)인 2012년 전남도에 하천공사 시행 허가를 신청하게 된 것임 ▲본격적인 취암천 직강화 공사는 다시 유두석 군수가 재임한 민선6기부터 추진됐음을 밝혔다.

또 기산리 일원 공설운동장 건립 계획 역시 민선4기 유두석 군수 공약사업(황룡강 국가하천 승격 공약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며 ▲민선4기 출범 이후인 2006년 11월에 작성된 ‘2020년 장성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르면 기존 황룡강 일원에 위치한 운동장을 기산리 일대인 문화센터 주변으로 이전·확장해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음 ▲그러나 민선5기(김양수 군수) 들어서며, 앞서 유두



황룡강 취암천의 물길을 바꾸고 매립해 축구장 5개 면적인 34,818㎡(약 10,532평)를 확보, 군민들의 오랜 염원인 공설운동장인 ‘엘로우시티 스타디움’이 부지를 놓고 최초 아이디어를 낸 군수가 누구인지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석 군수가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건립을 구상했던 기산리 일대에 ‘주차장 부지 태양광발전소’ 임대(15년 계약, 2014년 2월5일~2029년 2월4일)와 실내수영장이 건립돼 이후인 민선 6기 공설운동장 건립부지 확보에 큰 난항을 겪

게 됨 ▲군은 공설운동장 부지를 찾기 위해 고심하던 중 취암천 유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고수부지(현 엘로우시티 스타디움 자리)에 주목하고 스타디움 건립안을 구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3면에서 계속)

유가 폭등·운송료 동결 이중고... “화물 노동자 못 살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15일 오전 광주 서구의 모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돌파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운송료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역 화물 노동자들이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수년째 동결 중인 운송료 개선과 함께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평균 1313원이었던 경유가는 2021년 내내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 급등해 지난 16일 기준 1918원으로 무려 32% 상승했다.

이 중 12t 이상 화물차의 한 달 유류비 지출은 지난해 3월대비 약 175만원 증가했으며,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5t 이하 화물차

물 노동자의 생계 타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노조는 “대기업 화주들은 화물 노동자에게 원가비용이 제대로 반영된 운송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특히 유가 인상이 화물노동자의 소득 감소로 연결되지 않고 유가 인상이 운송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임에 대한 기준을

한 달 유류비 1년전 대비 64만~250만원 급상승

지역 운송료 10년째 그대로... ‘대책 마련 절실’

도 64만원 가량 지출액이 늘었다. 특히 무거운 철강 등을 운송하는 25t 화물차는 한 달 유류비 지출이 약 250만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 화주의 운송료 동결이 이어져 생계 유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운송료 인상 없이 유류비만 오르면서 화

물 노동자 박모(57)씨는 현재 자신의 11t 화물차로 한 주 동안 광주와 서울을 4회 가량 왕복하고 있다. 운수사로부터 회당 평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도 유가 상승과 운송료 동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화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화물 노동자 박모(57)씨는 현재 자신의 11t 화물차로 한 주 동안 광주와 서울을 4회 가량 왕복하고 있다. 운수사로부터 회당 평

균 60만원의 운송료를 받는 박씨는 절반 이상인 36만원 가량을 유류비에 쏟고 있다. 한 주에 쓰는 유류비만 약 14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식대 약 6만원과 톨게이트 통행료 약 5만원 등 추가 지출 비용을 합칠 경우 손에 쥐는 운송료는 회당 고작 10만원 선에 불과하다.

박씨는 “운송료도 3년 가까이 동결 중인데 기름값마저 폭등하면서 살 길이 막막하다. 만약 일주일에 280만원을 벌 경우 오롯이 쥘 수 있는 돈은 약 40만~45만원에 불과하다”며 “한 달을 꼬박 일해도 순수익은 겨우 200만원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화물 노동자 양모(55)씨도 “지역 사업장 가운데는 10년도 넘게 운송료를 동결하고 있는 곳도 있다. 2020년 당시 경유값이 0당 1200원 선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도리어 운송료를 떨어트린 곳도 있었다”며 “할부를 내지 못하고 차량을 압류 당한 화물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다. 심지어 현재 목포에서는 한 생수 회사의 운

송 노조가 유가 부담을 못이기고 파업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화물 노동자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안전운임제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해당 제도는 유가 인상률에 따라 운송료를 책정해 유가 급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화물 노동자 오모(56)씨는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의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시작한 제도로 점차 운송료 제도 전체를 대체해야 한다. 운송료 결정권이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진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직접 화물 노동자들의 부대비용을 조사해 적용하면서 적정 운송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유가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재현 기자

호남신문은 광주·전남 자치단체의 지역현안, 이슈, 비리 등을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보 ☎ 062-222-2580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